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테오도어 헤르츨

《오래된 새 땅》《Altneuland》

읽는다는 것의

슬픔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작은 새가 있었다.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곧장 우리 안에 갇혔다. 하루하루 사방이 막힌 세상에서 살아가며, 새는 언젠가부터 날갯짓을 멈췄다. 높이 날고 싶다는 욕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언어를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 머물렀다. 우리에게 그 새가 편해 보였다. 순하고 조용하며, 명령에 따르고,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느 날, 새는 고개를 들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기억해낸 것이다. 자신 안에 어떤 세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세계가 단어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새는 '읽기'를 시작했다. 자신을 가둔 우리를 읽었고, 우리 안의 공기를 읽었으며, 갇힌 삶의 구조를 읽었다. 이 이야기는 독해에 관한 이야기다. 문제를 푸는 기술 이전에, '읽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감각을 회복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수능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읽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또 어떤 이는 단 한 줄만으로도 세상의 구조를 직관한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정말 재능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떻게 읽는가'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푸는 법'만 강요받은 탓은 아닐까?

어릴 적 우리는 종종 이런 학습을 강요받았다. 학원에서 건네준 복사지는 매일 반복되는 '숙제'였고, 선생님은 "이 책 꼭 읽어. 읽기만 해도 국어 성적은 오를 거야."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작정 읽었다.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몰라도 읽었고, 이해하지 못한 채 밑줄을 그었고, 물음표 하나 없이 책장을 넘겼다. 그것이 공부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 없는 다독은, 그저 책을 넘기는 손가락만을 훈련시켰을 뿐이다. 생각 없이 읽는 독서는, 오히려 '이해하는 기쁨'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읽는 척'에는 익숙해졌지만,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배우지 못했다. 이 책은 그 오랜 오해를 되돌리기 위한 책이다. 이해 없이 읽었던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만나는 책이다. 단어를 외우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되찾는 책이다.

文明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쏟아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읽는 법을 배운 사람은 드물다.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내용이 낯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 보며, 왜 그렇게 서술되었는가’를 통합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읽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눈앞의 정보를 빠르게 해석하고, 문장의 논리를 따라가며, 저자의 시선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자신의 질문을 구성하는 일. 이것은 단지 정답을 맞히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해 다시 묻는 법’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책은 그런 회복을 위한 작은 안내서다. 단순히 정답을 찾기 위한 기술서가 아니다. 국어 성적을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삶의 문장을 다시 읽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문장을 구조로 읽고, 문장의 흐름을 인과로 분석하며, 글쓴이의 숨은 목적을 꿰뚫는 시선을 기를 것이다. 때로는 철학자가 되어 저자의 전제를 따지고, 때로는 작가가 되어 문장을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을 읽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때, 우리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세계를 다시 읽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이들을 위해 쓰였다. 수능 국어 비문학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독해력이 나아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궁금한 사람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 문제의 기술보다 문장의 진심을 읽고 싶은 독자들. 진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그러나 늘 벽 앞에서 멈추던 사람들.

당신이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다.



목차

1.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철학: 도덕적 본성의 사회적 확장	09
2. 뒤르캄의 규범 이해 : 사회적 사실로서의 도덕	30
3. 벤담과 공리주의의 사회적 파장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51
4. 롤스의 규범적 구성주의 : 정의의 절차와 무지의 장막	70
5. 칸트 도덕철학의 형식주의 구조 : 의무와 자율의 긴장	85
6. 이이의 기질론과 경제적 사유의 접점	101
7. 프롬의 실존적 사회비판 : 자유의 역설과 자기실현	109
8. 박지원 실학의 구조적 근대성 : 사유와 기술의 변증법	122
9. 홉스의 정치적 자연상태론 : 절대 권력과 계약의 역설	134
10.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공공성의 조건 : 합리성의 재정의	149
11. 데카르트적 주체의 탄생과 그 문화사적 파장 : 코기토와 투명성의 미학	162
12. 뉴턴 역학의 감각적 구조: 투명한 세계, 불투명한 사유	174
13. 플라톤 철학의 정치적 구조 : 이데아와 통치의 조건	187
14. 토마스 쿤 패러다임 : 정상과학의 폐쇄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인식 정치	201
15. 신채호의 민족 사유와 근대적 긴장 : 역사와 주체의 구성	214
16. 스피노자의 존재론적 일원성과 윤리적 필연성 : 원인 없는 원인과 자유의 정초	221
17. 밀 자유론의 규범적 딜레마 : 해악과 간섭의 경계	237



18. 에드워드 사이드 : 오리엔탈리즘과 지식의 권력 구조	249
19. 루소의 계약론적 존재구성 : 일반의지와 정치적 허구	260
20. 정약용의 경제학적 사유 구조 : 도덕과 제도의 매개	273
21. 맥루한의 미디어 존재론 : 감각의 구조와 환경의 매개	285
22. 라부아지에의 화학 혁명과 지식 언어의 전환 : 이름의 개혁과 사물의 구성	299
23. 공자의 정치윤리적 언어관 : 이름의 질서와 덕의 구조	312
24. 흄볼트의 언어적 인간관과 자유의 정치구조 : 형성과 표현의 긴장	327
25. 톨스토이의 도덕적 무정부주의 : 비폭력과 양심의 질서	341
26. 피히테 철학의 능동적 자기근거화 : 자아의 실천성과 윤리의 구성	353
27. 장자의 해체적 사유 구조 : 경계의 유예와 앞의 무효성	366
28. 헤겔 부정을 포함한 사유의 형식 : 움직이는 정체성	376
29.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전환 : 차이의 관계망으로서의 언어	390
30. 제레민 리프킨 의식 진화와 경제 구조의 재구성 : 공감의 수평성	405

책 활용 방법

1 먼저 지문 전체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겉모습'인 기표(signifiant)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인 기의(signifié)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읽기란 곧 표면을 넘어 의미에 도달하려는 행위입니다.

2 문장 명료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문을 모두 읽었다면, 다음으로는 문장을 하나씩 분해하여 중학생 또는 할머니에게 설명하듯, 문장의 위계를 낮춰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어휘나 낯선 개념을 본인의 언어로 풀어 쓰는 훈련을 합니다.

문장 명료화

원문 맹자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과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삼는 존재일 경우, 공공 질서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 보았다.

명료화

맹자는 인간이 오직 살아남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기존 지식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설은 참고용일 뿐이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활용해 주세요. 중요한 건 타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3 문장별 표상화 훈련을 진행합니다.

문장 명료화를 마쳤다면, 다음은 각 문장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어에 대해 '표상화'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표상화란 단어를 읽는 순간,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이미지나 개념의 덩어리로 떠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수험생에게는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독해 속도와 정확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단어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따라 표상화를 시도해보세요.

철학

[예시 표상화]

사색하는 소크라테스, 텅 빈 방에서 고요하게 책을 읽는 모습, 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장면

표상화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미지와 언어로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위 예시는 하나의 방향일 뿐이며, 학생 스스로 그 단어를 접했을 때 무슨 장면이나 의미가 떠오르는지 써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상화 목록 아래에 자신의 해석을 먼저 적고, 이후 해설과 비교해보며 더 나은 이미지와 설명을 업데이트해보세요.

중요한 점은, 이 책이 표상화 능력을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표상화가 필요한 단어 목록’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단어들은 단순히 어려운 어휘가 아니라, 수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핵심 개념들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단어를 자신만의 이미지와 언어로 표상화하여 기억할 수 있다면, 독해력과 사고력은 물론, 실제 시험 성적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지문 전체를 읽습니다.

모든 단계를 마친 후, 책을 덮기 전에 지문 전체를 다시 읽어보세요. 이 반복의 과정에서 비로소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고, 핵심 문장과 중심 개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별도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독해력이 쌓이면 스스로 핵심과 논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한 지문씩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마무리해 주세요.

1 맹자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철학 : 도덕적 본성의 사회적 확장

맹자의 철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원적 신뢰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지향하며,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면의 자생적 감수성에 의해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인간 본성을 악하거나 공허하게 보는 관점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맹자는 도덕적 감응의 가능성을 인간 내면의 '사단(四端)'이라 불리는 네 가지 정서적 기제로 설명하는데, 이는 각각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감정으로 구체화되며, 이후 인·의·예·지라는 성숙한 덕목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정서의 발현을 억제하지 않는 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성선(性善)의 인식은 맹자의 정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는 인간이 본래 도덕성을 갖춘 존재라면, 정치란 그 도덕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맹자는 권력의 행사는 무력이나 위압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도덕적 질서 속에 위치시키는 '왕도(王道)'를 이상적 정치 형태로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로 민심의 이반과 권위의 붕괴를 경험한 당시의 패도 정치에 대한 체계적 반론이었다. 왕도의 실현 가능성은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 즉 민중이 '의(義)'를 따를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맹자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긴장은 '의'와 '이(利)'의 구분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과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삼는 존재일 경우, 공공 질서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 보았다. 반면, '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타인의 존재를 목적으로 존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의'가 외부 규율에 의한 순응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조화롭게 조직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맹자는 여기서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통찰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이라는 전제는, 단지 인간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문장 명료화

원문 맹자의 철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원적 신뢰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문장 명료화 해설

이 문장은 맹자라는 사람이 생각한 모든 철학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죠.

표상화 가능한 단어	
맹자	[방법] 고대 중국 복장을 한 사상가가 죽간을 들고 있는 모습
철학	[방법] 책과 촛불 옆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자, '왜?'라는 물음표
인간 존재	[방법]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모습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이미지
본원적	[방법] 땅속 뿌리나 씨앗에서 발아하는 장면
신뢰	[방법] 두 사람이 손을 굳게 맞잡고 있는 그림
기반	[방법] 돌기둥 위에 세워진 단단한 건물의 기초
전개된다	[방법] 말려 있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모습, 또는 꽃이 피어나는 장면